

북촌우물가

Andong Presbyterian Church News Letter

2005년 2월호

통권 제 144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1월 교우소식

새 교우

- ♣ 최혜영씨(21세) : 올해 2부성가대 솔리스트로 봉사하게 되어 우리교회에 등록하였다. 주소는 서초구 방배3동 483-1 702호
- ♣ 문홍숙씨(21세) : 역시 2부성가대 솔리스트로 영입되어 등록하였다. 주소는 고양시 주엽2동 문촌마을 쌍용(아) 601-1402
- ♣ 홍임정씨(29세) : 이생림집사 인도로 우리교회에 등록하게 된 홍임정씨는 이생림집사와 같은 집에 살고 있다(삼청동). 평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그림을 그리는 프리랜서이다.
- ♣ 안영미씨 : 안영미씨는 청년부 윤민우의 어머니이다. 강원도 평창에 농장이 있어서 서울과 평창을 오가시며 생활하고 있다. 역시 이생림집사가 인도했으며 집은 삼청동 35-148번지이다.
- ♣ 조혜자씨(79세) : 조혜자씨는 이진집사의 어머니이며 이 분장로의 큰형수가 되신다. 교직에 오랫동안 몸담고 계시다가 은퇴하여 조용히 살고 계신다. 그동안 충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올해에 아들과 시동생이 있는 우리교회에 등록하였다. 주소는 송파구 오금동 143-2
- ♣ 권도윤(27세) : 교육대학원에 다니면서 영어학 습교재를 집필하는 권도윤씨는 정독도서관을 다니면서 지나다니다가 우리 교회를 접하고 자진하여 등록하였다. 이전에 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으며,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부를 알게 되었고 청년부에 소속하여 활동할 계획이다. 주소는 동대문구 휘경2동 서울가

든 A-1014



(권도윤씨와 조혜자씨의 모습)

이 사

- ★은성순권사 : 마포구 도화동 현대(아) 207-1305
- ★구희숙목사 : 종로구 소격동 111 ☎ 735-6997
- ★이성철목사 : 가회동 36번지 201호 ☎ 766-9414

기 증

- ★김용희 명예권사 : 1월 9일(주일) 전교우 점심식사 대접

출 산

- ★이세영, 박희원교우 득녀(이 은)
- ★민경탁, 주연수교우 득남(민승홍)

부 입

- ★신수정교우 : 2부예배 오르간 반주(수원시립 합창단원)

축 하

- ★ 정혜림씨(유명옥집사 1녀) 아들 신원식군 돌
- ★ 김형주집사,조성아씨 딸 김민주 백일
- ★ 정학재집사, 정진희씨 딸 정민주 돌

- ★ 주연수교우(24구역), 서울대음대강사, 계원예고 교사발령
- ★ 최예순집사, 교육인적자원부 교양강좌 강의(주제:21세기 여성)

환 자

- ★ 노세희집사 : 일산 국립암센터 708호에서 1차 수술 후 간경화수술을 위해 퇴원 치료 중
- ★ 서정호권사 : 다리수술 후 자택에서 치료 중
- ★ 유연준권사 : 강남 제일정형외과에서 무릎 치료 후 퇴원하여 회복 중
- ★ 박용림집사 : 삼성의료원 입원

사 임

- ★천영철 교육목사(중고등부) : 1월 16일부로 사임.

방 문

- ★뉴질랜드 세인트 앤드류 장로교회의 김덕경 전도사와 청소년들 교회 방문

2004/2005 송구영신예배

2004년 12월 31일 밤 11시 30분에 송구영신예배를 드렸다. 1부는 <한 해를 보내며>라는 주제로 한 해의 삶을 정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렸고 영상자료를 통해 교회의 여러 행사들을 보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회개의 기도문을 써서 십자가에 못박고 침묵기도를 드리면서 안동교회의 한 해를 마무리하였다. 신년을 알리는 힘찬 희망의 종소리와 함께 한 2부 예배는 <미션 2005>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10가지 다양한 삶의 정황을 놓고 연속기도를 드렸고, 박병욱목사는 시편 1:1-6과 빌립보서 4:10-13으로 “만족과 자유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신년축하 메시지를 전하였다. 이어서 다짐의 기도와 복음송과 파송의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가 축복하며 2005년도에도 모두가 복음을 위해 세상에 파송되는 헌신의 의미를 새겼다. 예배 후 친교실에서 당회에서 준비한 차를 마시면서 새해인사를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험하였다.

은퇴 · 추대식

1월 첫주 주일예배시에 거행된 은퇴·추대식에

서는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였던 6명의 직분자들이 은퇴와 추대를 각각 받게 되었다. 양재철 집사, 김효수, 강신자권사가 은퇴를 하였고 조동훈 집사와 박호균집사는 명예집사로, 김용희권사는 명예권사로 각각 추대되었다.

제직헌신예배 · 제직수련회

올해 제직들을 교육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예배와 제직수련회가 있었다. 1월9일 오후 2시 제직헌신예배에서는 박병욱 목사가 빌립보서 2:12-18의 말씀으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하였다. 제직수련회는 1월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저녁 7시에 진행되었다. 1월12일에는 본교회 담임목사의 “대표기도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였다. 1) 대표기도란 무엇인가? 2) 대표기도는 언제 하는가? 3) 대표기도는 어떻게 드리는가? 4) 대표기도는 누가 해야 하는가? 대표기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6) 대표기도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7) 대표기도 클리닉 등이 그 내용이다. 1월 14일(금)에는 6시에 친교실에서 식사를 함께 하였고 박병욱목사의 사회로 제직회를 진행한후 옷놀이와 푸집한 선물을 각각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1월 13일(목)에는 용산교회 류기열 목사를 초청하여 “본질을 붙잡는 제직(행6:1-7)”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다. 연인원 324명이 기도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례식

1월 첫주인 2일 주일예배시에 세례, 입교식이 있었다. 입교는 박진경, 송수경, 이재영과 세례는 최경일, 김무일, 김미조, 김지연이다.

겨울수련회 · 성경학교

중고등부가 1월7일부터 9일까지 가평 성락기도원에서 겨울수련회를 가졌다. 학생 39명, 교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새학년이 되어서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적응하며 친교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성경에 대한 개관적인 지식을 배우고 전체적으로 공부하고 성경퀴즈와 촛불기도회, 찬양의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으로 수련회를 마쳤다.

아동부는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했다. 어린이 30여명과 교사 10명이 참석하였고, 예배와 찬양, 점심 만들어먹기, 코너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가졌으며 둘째날에는 과천 서울랜드에 가서 눈썰매를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짐으로 어린이들이 방학 중에도 교회에 잘 다니도록하며 새학년이 된 어린이들의 적응을 높이도록 하였다.

농목연 새 연속 강좌

1992년 회년공동체운동의 일환으로 개원된 농촌목회연구원은 지금까지 매년 농촌교회 교역자들을 초청하여 목회에 필요한 여러 분야의 강좌를 개설하고 점심과 목회자료를 제공하였다. 올해부터는 배움의 깊이를 더하고자 연속강좌를 개설하기로 하고 하경택교수(서울장신대 구약학)를 모시고 5회에 걸쳐 “구약과 설교”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된다. 첫 강의는 1월 17일(월)에 “구약성서해석의 역사”를 강의 하였고 120여명의 교역자들이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진지하고도 학구적인 시간을 가졌고 농목연 소속의 봉사자들이 떡과 음료, 식사를 준비하여 친교의 시간도 가졌다.

신년음악회

1월 23일 오후 7시 30분에 시작된 올해 신년음악회는 대학합창단을 초청하여 연주를 들었다. 예배위원장인 강명준장로의 인사와 소개, 박병욱목사의 기도로 시작하였다. 또한 대학합창단을 시작부터 지금까지 인솔해오고 있는 이효종장로는 선교와 합창음악의 발전을 위한 대학합창단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최훈차교수가 지휘하였고, 피아노에는 임보현, 오르간은 이은혜가 연주하였다. 레파토리는

<온천하 만물 우러러>, <주기도>, <시편23편>, <알렐루야> 등의 고전성가와 20세기 현대성가인 <주의 나라 가네>, <평안있네>, <알렐루야> 등을 불렀고 S.Y. Miller의 <이 땅에 평화 주소서>를 합창단과 관객들이 함께 불러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늘푸른교실 방학중 모임

늘푸른교실은 방학중 모임을 19일(수) 10시 30분에 모였다. 추운 날씨였지만 약 90여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반가이 인사를 나누었고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 구회숙목사는 시편 127:1-5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복된 삶”으로 말씀을 전하였고 늘푸른교실 원간인 박정음 장로가 기도하였고 예배후 12월과 1월중 생일맞은 분들을 축하하고 친교실에서 식사를 한 후 옷돌이를 하며 친교를 하였다.

어린이집 졸업 · 수료식

1월 27일 오후 5시에 어린이집은 졸업식과 수료식을 했다. 1부 예배에서 구회숙목사는 “예수님을 닮아 살아요”(마태복음 11:29)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최창해목사가 축도를 하였다. 2부 수료식에서는 올해 총 6명의 어린이가 졸업하였고 3월부터 교육관이 리모델링에 들어감에 따라 어린이들이부득불 수료하게 되었는데 40명의 어린이가 수료를 하였고 2월까지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관 리모델링이 끝나면 9월에 어린이집을 다시 운영할 계획이다.



심야기도회 활성화

올해부터는 심야기도회를 예배실에서 하기로 결의하고 교역자가 직접 기도회를 인도하며 교회전

체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매주 금요일 오후 9시에 있는 이 기도회에서는 찬양과 기도, 말씀선포 뿐 아니라 주관부서의 특송과 기도제목을 나누며 주관부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회를 하고 있다. 7일에는 한샘여전도회, 21일에는 한사랑여전도회, 28일에는 한메남선교회가 각각 주관하였다.

사회봉사국 전체모임

사회봉사국은 1월 28일 1시에 회의실에서 전체모임을 갖고 봉사자 활성화를 위하여 제직회 국원모임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사회봉사국원을 중보기도팀과 교육훈련팀, 봉사기획팀의 3조로 나누어 구체적인 내용으로 모이기에 힘쓰기로 하였다. 또한 이날 모임에서는 새터민 후원을 연구 검토, 사회단체후원 기관을 방문하여 결정하는 것과 이용봉사 출장봉사, 독거노인을 위한 위안잔치 사업을 확장시행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지진해일 피해 복구헌금

우리교회는 쓰나미 지진과 최악의 해일로 인해 약 10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동남아시아 7개국이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도록 1월 첫주부터 셋째주까지 헌금을 하였다. 전교인이 정성껏 마음으로 모은 헌금의 총액은 1,889,000이고, 이를 총회 사회봉사부에 전달하였다.

소허당 특강

소허당은 1월 30일 오후 1시에 이지연 선생을 모시고 비즈공예로 특강을 열었다. 이날 모인 사람들은 직접 핸드폰줄을 만들어 보면서 문화를 체험하였다.

여전도회의 날

한길여전도회는 1월 20일(목) 11시 기도실에서 <한길의 날>을 갖고 예배와 회원간의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회장에 오정순집사, 부회장에는 김휴숙집사, 총무는 최문수집사이다.

제직회 소개

○●예배국●○

예배국은 봉사국의 제 2국으로 있다가 2005년부터 분리 독립되었다. 예배국(국장 오군자권사, 고문 조기현 장로, 지도 최창해목사)은 지난 1월 23일 2부예배 후에 모여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올 한 해 동안의 헌신을 다짐하였다.

예배국 내의 부서는 다음과 같다.

- 미화부(부장 김소진집사) : 예배당 강단 꽃장식 등 교회의 미화를 담당한다.
- 예배준비부(고명수집사) : 예배가 경건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준비하고 안내 및 헌금 등을 돕는다.
- 성찬기 봉사부(한인수권사) : 성찬식 후 성찬기를 수거하고 세척한다.
- 경조부(홍세진권사, 김윤성집사) : 교우들의 경조사에 참여하여 함께 위로하고 기쁨을 나눈다.
- 한소망 찬양대(대장 이정숙장로) : 장례예배 때 찬양을 담당한다.

교회수첩에 국원으로 있는 제직들은 각 부 중에 한 부에 참여하여 봉사하는 기회와 기쁨을 누리시고, 부탁이나 고견이 있으면 예배국장에게 제안하여 예배국이 활성화되고 예배의 기쁨이 충만한 안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찬송가 앞장에 파송찬송을 붙이고 있는 예배국원들)

1월 담임목사 동정

- 3일 서울노회 신년하례회 참석
- 11일 CTS(기독교 TV) 직원예배 인도
- 16일 용산교회 여전도회 헌신예배 설교
- 17일 한민족 평화선교연구소 이사회 참석

총회·연합회 소식

새해, 총회의 당면과제

지난 한해는 1년 내내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 되다가 엄청난 대지진의 소식으로 마무리 되어 우리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였다. 그러나 이제 과거는 역사의 교훈으로 남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발전을 위한 심사숙고의 당연한 책무가 주어졌다. 지난 제89회 총회 이후 진행된 총회 업무의 진행과정을 고려할 때, 우리 모두는 몇가지 보다 진지하고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우리는 정책 총회, 사업 노회의 근본구조를 견고히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총회 기구를 보다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구개혁을 단행한 바 있으나 사업 노회 체제구축을 위한 현실적 노력은 아직 미비하다. 노회가 모든 선교사업의 주체로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적보완과 기구정비, 그리고 재정 자립도의 제고 등 현실적 보완이 시급히 요청된다.

노회의 실제적 기능강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노회를 선교사업의 주체로 세우고자 하는 총회의 기본방침은 처음부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총회 임원회를 비롯한 모든 실무진들과 노회 당사자들은 신속히 노회 기능강화를 위한 실제적 조치들을 강구하여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둘째는,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평균화 정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미 총회방침은 발표되어 있으나 실제 교회현장은 이 방침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잘 보이지 않고 있다. 자칫 미자립교회 교역자들에게 본의 아닌 피해가 생길 수도 있고 총회정책의 신뢰성에도 상처를 줄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이의 바른 집행을 위해서는 총회 결의를 성실히 준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지원 하는 교회와 피지원 교회, 그리고 총회와 노회 실무자 모두에게 필요하다. 각종의 개인적 연고에 의해 불합리하게 진행된 미자립교회 지원이 총회의 정책에 부응하려는 일선 교회들의 협력에 의해 정상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셋째는, 훈련원 기능의 정상화를 통한 기구개혁의 완결이 있기를 바란다. 기구개혁에 따른 훈련원의 위상과 기능은 크게 강화되었으나 아직 이렇

다할 성과물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종전의 각 부서들이 진행해온 교육과정마저 중단되거나 부진한 상태가 되어 있다. 이는 훈련원의 역할에 따른 명확한 업무 지침이 미비하고 훈련원 업무 실무진들의 업무처리 방식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화된 역할에 부합한 인적 보완을 이루고 각 부서와 긴밀한 협의체제 구축을 통하여 시급하게 기능 정상화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 훈련원 지도부의 정확한 상황 인식과 심기일전의 분발이 있기를 촉구한다.

빠른 구호, 희망을 전했다

지난 5일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스리랑카 지역의 피해 규모 확인과 식량 의복 등의 구호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구호담당 오상열목사를 스리랑카에 급파한 총회 사회 봉사부 (부장:최병두 총무:류태선)는 지난 14일 열린 실행위원회를 통해 현지 사정을 접수하고 전국교회로부터 모금된 구호현금 파악을 통해 추가 지원에 관한 세부안을 확정하기로 결의했다. 실행위는 우선 접수된 구호 현금 중 1억원을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에 지원했다.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와 최대 피해지역 중 한 곳인 바티칼로 지역을 방문하고 9일 귀국한 오상열목사는 "피해를 당한 사람들 대다수가 해안가에 살던 빈민층"이라면서 "어업이나 관광업을 생계방편으로 삼았던 이들의 집이 들어서있던 해안가에 부서진 가옥의 잔해만 남았다"고 참담한 현지 소식을 전했다. 오 목사는 "그나마 본교단 최도식 송유성선교사를 비롯한 현지 선교사들이 부상자 치료와 이재민 캠프를 세우는 데 당국과 각국의 구호팀간 통역 등 중추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어 구호 진행상황도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류태선 총무는 "개교회가 총회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구호팀을 파견하거나 구호비를 지원할 경우 중복지원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총회사회부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폭넓은 지역에서 체계적인 구호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평준화 사업

총회 임원회와 재정부는 지난 18일 총회 회의실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현재 추진중인 평준화 사업의 정착을 위해 총회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기로 하는 한편 총회 정책에 전국교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15일 현재, 일부 노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노회들이 순조롭게 평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연석회의에서 총회 임원들과 재정부원들은 지원받는 노회들의 적극적인 자세에 비해 일부 지원노회들은 여전히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 지원노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총회 결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총회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전국교회들이 따라주지 않을 뿐 아니라 총회 권위와 공신력마저 잃어 버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 총회 임원들과 재정부원들이 직접 전국노회와 교회를 찾아가 설득하고 참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회 임원과 재정부원들은 우선 수도권지역에 위치한 50여 대형 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 조만간 연석회의를 갖고 평준화 사업의 의미를 재차 이해시키는 한편 총회 결의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하기로 했다.

총회 임원과 재정부원들은 또 최근 평준화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으로 전국노회의 이해 부족과 대형 교회의 관심 부족, 개교회주의 등을 지적한 뒤, 평준화 사업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위해 총회가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는 만큼 올해부터 반드시 평준화 사업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총회장 김태범목사는 △지원교회들은 기존의 지원을 중단하고 연결된 미자립교회로만 지원 △지원교회 실사 및 배정 △지원받는 교회는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평준화 사업이 정착될 때까지 참아줄 것 등을 요청했다.

그리스도인 일치기도 주간

세계교회협의회(총무:샘 코비아) 신앙직제위원회와 가톨릭 교황청 산하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의장:브라이언 파렐)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05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 주간이 지난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맞추어 국내 그리스도교 일치 기도회가 지난 20일 5시 연동교회(이성희목사 시무)에서 본교단 주관으로 교회협 회원교회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국내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백도웅)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참여하고 있는 기도 주간의 올해 주제는 '교회의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고린도전서 3장 1-23절)로 이번 일치기도 주간은 슬로바키아 교회가 초안을 마련했다.

슬로바키아 교회는 지난 일치주간 주제 소개를 통해 "이번 주제는 교회 성장의 새로운 가능성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나오게 됐다"면서 "슬로바키아의 교회들은 40년동안 사회 안에 교회의 존재는 허용하되 그 성장을 방해하고 그 증언을 제한하던 정치적 상황을 겪은 뒤 10년동안 쇠신과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주제는 △신앙 성숙은 일치 증대를 뜻하고 △봉사를 통한 겸손으로 하나되어 △유일한 기초 위에서 봉사하기 등으로 나누어 소개했다.

또한 일치주간을 앞두고 발행된 자료집은 일치 기도 예식에 대해 "참회의 기도와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말씀의 선포에 이어 바침으로써 이 기도가 예배의 근본 요소가 되게 한다"면서 "예식에 참여한 각 공동체가 하나인 교회의 기초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공동으로 양심 성찰을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료집에는 그리스도 일치기도 주간인 8일간의 성서 묵상과 기도를 성경 본문과 함께 이에 대한 해설 기도 내용 등을 수록해서 하루씩 진행하도록 했다.

8일 간의 묵상과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다.

△1일 영적 성숙의 소명 △2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3일 그리스도께서는 기초이십니다 △4일 여러분은 이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5일 하나님께서는 집을 지은 우리의 업적을 심판하신다 △6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

입니다 △7일 어리석음과 지혜 △8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등이다.

김태범 총회장 신년 기자회견 스케치

“새해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제 자리를 지키고 비판을 멀리하자”

신년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총회장 김태범 목사(대구 삼덕교회)는 당면한 한국교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비판하지 말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신문과 방송사 등 20여 명의 기자들이 참석할 가운데 열린 이날 회견은 2005년도 총회의 주요 현안과 과제를 소개하고,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총회장 김태범 목사를 비롯해 사무총장 조성기 목사와 기획국장 김경인 목사 사무국장 이기환장로 등이 배석했다.

이날 총회장 인사말에 이어 총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소개에서 조성기사무총장은 신년도에도 변함없이 '정책 총회와 사업노회 훈련원'의 삼각구도 하에 중단없는 개혁 조치를 시행해 갈 방침이라고 전제한 뒤, 금년도 최대의 관심사로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평준화 사업 시행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이어 총회의 주요 과제로 오는 2007년, 1907년 대부흥운동 1백주년을 맞아 준비하고 있는 (가칭) 비전 2007 계획을 비롯해, 오는 2월 말로 지령 2천5백호를 맞게 되는 총회 기관지 한국기독교공보사의 다양한 기념행사와 발전 방안 마련을 꼽았으며, 이밖에도 △총회 장학재단 설립 △평양제일교회 건축 준공 △에큐메니칼 사역의 지평 확대 등을 꼽았으며, 시급한 과제로 아시아기독교협의회(총무:안재웅)에서 제안한 △'아시아기독교의 쓰나미 이후 전략과 정책 마련을 위한 워크숍과 △노회 현장에 참여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노회경계 준수를 위한 조치 △하나의 직영신학교 설치 △백주년기념관 증개축 문제에 대한 재론 등을 꼽았다.

이날 회견에서 총회 각 부서들의 신년도 주요 사업들에 대한 보고도 함께 제출됐는데 기자들은 (가칭) '비전 2007'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안과 평

양에 건축될 평양제일교회의 건립 문제와, 오는 3월 금강산에서 열린 '광복 60주년 기념 기도회, 교회협과 한기총 통합 논의에 대한 본 교단의 역할 등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총회장 김태범목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한 해 한국교회가 보여왔던 갈등과 반목을 씻기 위해서는 '제 자리를 지키는 것'만이 해결이라면서, 본래의 설립 목적으로부터 벗어난 선교 기관과 교계 단체들로 인해 의미 있는 결실도 없지 않았으나 부정적 행태와 부산물들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인간의 주의와 입장을 넘어선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인정하는 것만이 소중함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中, 종교 간섭 합법화 시도

그동안 자국 내에서의 종교 활동을 규제해 온 중국 정부가 새로운 법안을 통해 종교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 3월부터 종교활동에 대한 정부 관여를 합법화하는 '종교사무조례'를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사무조례'가 시행되면 표면적으로는 종교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만 내용적으로는 중국 내에서의 종교활동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중국 선교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법안은 정부의 종교관리 능력 강화와 국가기관에 개인이나 단체명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종교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가정교회의 활동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교시설에 대한 몰수, 불법 소득에 대한 벌금, 구속 등의 처벌조항도 담고 있어 중국에서의 선교활동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A 모 선교사는 "중국 정부가 종교를 탄압한 역사는 오래됐고 매년 공안에서 정해진 수에 따라 선교사들을 추방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새로운 법이 선교활동을 더욱 통제할 것으로 보여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무척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독교대안교육협 컨퍼런스 -공교육의 기독교적 대안은?

공교육의 폐해에 대한 대안을 기독교교육을 통해 마련하고자 지난 2000년 발족된 기독교대안교육협의회(대표:김선요·이하 기대협) 다섯번째 컨퍼런스가 지난 7-8일 서울여자대학교(총장:이광자) 바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교육의 기독교적 대안: 가정, 학교 그리고 교회'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게리 콕스(Gary L. Cox)목사(WCFS·위커스빌 기독교 가정학교 장학관) 전성은위원장(정부 교육혁신위원회) 장동민교수(천안대) 김남영교수(광운대) 등이 강사로 참여해, 교회와 가정내 기독교교육, 가정과 교회를 연결한 기독교교육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 방안들을 제시했다.

행사를 주최한 기대협 김선요 대표는 "그동안 진행해 온 컨퍼런스에서 그 해 이슈가 되는 사안들을 주제로 설정했는데, 올해에는 교육이 이뤄지는 근본적인 공간인 가정 학교 교회, 그 중에서도 가정안에서 선행되어야 할 기독교교육의 실체에 논의의 무게를 두었다"고 말했다.

'크리스찬 부모에게 자녀 교육은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사역'이라는 당위성 아래 설립, 미국에서 교회와 가정, 기독교학교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위커스빌 기독교 가정학교의 게리 콕스목사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창조된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와 사랑, 돌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콕스목사는 "하나님은 가르침의 일차적인 공간으로 가정을 선택하셨다"고 하면서 "기독교교육 전문가들의 협력과 지도를 통해 부모는 자녀들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도록 양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스쿨링(Homeschooling)과 교회학교(Church school)의 방향과 실제'에 대해 강의한 김남영교수는 "홈스쿨링을 하게 된 부모들은 대부분 현행 학교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뒤 "기독교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홈스쿨링은 사회의 세속적인 교육에 노출된 자녀들이 성경

에 근거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 전성은위원장은 "대부분의 믿는 가정들조차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는 큰 관심이 없는 게 기독교교육의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자녀들을 학벌주의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서울대 중심의 교육관'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이 공동의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컨퍼런스 첫째날이었던 8일에는, 기대협 산하 기독교대안학교연맹이 발족돼 기독교교육을 위한 공동의 연구와 협력, 학교간 교류, 교사연수 및 학교 자원개발의 공동수행 등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기독교대안학교연맹에는 독수리중학교, 한동 국제학교, 충남 꿈의학교, 부산 지구촌고등학교 등 7개 학교가 가입돼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대안학교 관계자, 학부모, 교회학교 교사 등 4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장 한편에는 대안학교와 연구소를 소개하는 부스와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학습 공간이 마련돼 참가자들의 발길을 끌었다.

※ [총회·연합회 소식]과 [교계소식]은 한국기독교공보(<http://www.kidokongbo.com/>)를 참고하였습니다.

북존우물기

2005년 2월호 · 통권 제144호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인종교회

발행인 : 박 병 옥

편집인 : (교회소식) 구희숙

(교계소식) 이성철

발행일 : 2004년 2월 6일